제5강 취미판단의 제1계기: 성질의 범주에 따른 고찰 (3)

(1교시)

◆ 무관심성과 근대성

※ 이번 시간에는『판단력 비판』(김상현 옮김, 책세상, 2005)을 p.18, **§3. 쾌적에 관한 만족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**부터 읽어나간다. 그리고 칸트의 사상에서 '무관심성'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, 무관심성이 '근대성'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.

▲ 감각

(1) 객관적 감각
: '대상에 대한 감각'이라는 의미로 쓸 때

(2) 주관적 감각
: 정서적 반응 = 감정

예) 초록색 잔디밭이 있다.
- 잔디밭의 '초록색'은 감관이 대상을 지각한 것이다. : 객관적 감각
- 잔디밭의 초록색에서 쾌적함을 느낀다. : 주관적 감각

'나는 초록색 잔디밭이 쾌적함을 준다고 판단한다.'
⇒ 이 판단으로 보아 내가 초록색 잔디밭에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.

▲ 취미판단의 무관심성 (제 1계기)

관심 - 현존의 표상과 결부된 만족
욕구(능력)과 관련이 있다.

욕구 - 감각적 욕구
- 실천적(도덕적) 욕구

무관심 - 감각적, 실천적 욕구와 무관하다.

▲ 미학(美學)의 자율성

: 예술이 예술의 영역 안에서 고유하게 이해되고 판단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승인될 때, 미학의 자율성이 보장된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비교) 유럽 중세시대의 예술 - 기독교의 이념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, 판단, 처리되었다.
현대 한국에서 장정일, 이현세, 마광수 등과 관련된 사건
- 예술을 예술 고유의 영역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도덕(정치)과 혼동하였다.

▲ 과학, 도덕, 예술, 종교

(1) 칸트는 과학, 도덕, 예술,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 안에서는 각각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밝혔다.

과학	도덕(정치)	예술	종교
『순수이성비판』	『실천이성비판』	『판단력비판』	
규정적 판단		반성적 판단	이념
이론이성(지성)	실천이성	미: 상상력 + 지성 숭고: 상상력 + 이성	
합법칙성	자유(자율)	합목적성	

⇒ 과학, 도덕, 예술, 종교가 성립하는 근본원리는 각기 다르다.

(2) 위의 네 영역의 고유성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성의 특징이다.

▶ 참고자료 I
『자연과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(Metaphysical Foundation of Natural Science)』
- 1786에 나온 칸트의 저서.
- 이 책을 통해 칸트는 과학적 진리의 형이상학적 근거를 제시한다. 특히 뉴턴의 과학법칙의 철학적 근거를 밝혀놓았다.
예) 뉴턴의 3대 법칙인 관성, 가속도,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각각 관계 범주의 실체성, 인과성, 상호성과 연관된다.

▲ 근대성

- 전근대성 : 과학, 도덕, 예술, 종교의 영역이 무질서하게 혼합된 상태
- 근대성 : 위의 영역에 각기 독자적인 원리가 있다. 주체중심주의. 이성중심주의
- 탈근대성 : 근대적인 분할을 벗어나려는 움직임. 전근대성과 혼동될 소지도 있다.

※막스 베버 - 과학, 도덕, 예술, 종교 영역의 분할과 근대성에 관해 쉬운 설명을 제공한다.

▶ 참고자료 II
막스 베버 (Max Weber, 1864~1920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독일의 사회학자
주요저서: 『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』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(2교시)

◆ 감성적 자유와 인간의 완성

※ p.20, **§4. 선에 대한 만족은 관심과 결합되어 있다**를 읽는다. 앞 시간에 감각적 욕구가 미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본 데 이어 실천적(도덕적) 욕구 또한 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밝힌다.

▲ 감성적 자유

- 감각적, 도덕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감성적(미적) 자유를 얻는다.
  감성적 자유를 확보해야만 인간은 완성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.
  (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불가능한 지점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동경하고 지향해서 애쓴다.)

- 문화(文化; Kultur) : 신이 세상을 창조한 궁극 목적에 해당한다.
  문화는 감성적 자유를 통해 확보된다.

▲ 칸트의 인간관과 역사의 진보

(1) 유한자로서의 인간
: 칸트는 인간이 신과 동물의 중간자이며 유한자이나 신이 되는 것을 향해 발버둥 친다고 보았다.

(2) 인간이성의 운명
: 『순수이성비판』의 첫머리는 인간이성(=인간)은 어떤 인식에 있어서는 회피할 수도, 해결할 수도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시작된다.
↑
神, (전체로서의) 세계, 자아(=인간 영혼)
⇒ 인간이성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궁극적 해답에는 이르지 못한다. 그러나 해답을 찾는 과정을 멈출 수도 없다. (이것의 비극성이 『판단력 비판』 미학 부분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.)

⇒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는 진보가 이루어진다.
: 신의 섭리에 따라 세상이 움직인다고 보았던 전근대적 세계관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다.
이러한 관점은 역사철학, 진보사관, 마르크스의 역사발전관 등으로 이어진다.

▲ 지성과 이성

(1) 지성 (Verstand; understanding) - 개념능력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

: 주어진 감각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갖는다.

(2) 이성 (Vernunft; reason) - 이념능력
: 상응하는 감각적 자료가 없는 경우
이념(idea)을 실현하고자하는 논리(logos)가 발생하면 → 이데올로기(ideology)가 나온다.

※ 인류에게 가장 공통된 이데올로기는 유토피아를 구현하는 것이지만, 그 방법에 대한 견해, 즉 각각의 이데올로기는 다양하다. 이성중심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성이 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이다.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